

호남언론 상징 ... 代어 읽을 신문으로



지령 2만호를 조선대구성원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역 최초로 달성한 지령 2만호는 63년의 역사가 빛어낸 찬란한 금자탑입니다. 현대사와 맥을 함께하며 예리한 필봉으로 지역을 대변해온 호남언론의 상징, 광주일보가 '대(代)를 이어 읽을 신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서재홍 사립대총장협 부회장·조선대 총장>

시대 변화 먼저 읽고 제시하는 언론 되길



광주일보는 2만호를 발행하는 동안 공공의 관점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저항과 공동체, 5·18 정신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읽고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이 돼 주길 당부합니다.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살기좋은 사회 가꿔가는 길잡이 돼 달라



2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불평부당의 정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광주일보에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 더 즐겁고 희망찬 소식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가꿔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김윤하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

건설적 비판·지역민 여론 잘 반영해야



호남 지역민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으로 위기에 처한 광주·전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 옹호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가치도 언론다운 언론, 정론지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광주·전남 발전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56%

호남·호남인 여론조사 지역현안

◇광주·전남 상생발전=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42.2%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은 27.3%의 응답률을 보이면서 뒤를 이었다.

‘혁신도시 활성화’라고 응답한 사람 중 지역별로는 전남 거주층이 47.4%로, 광주 거주층(35.2%) 보다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가 나주에 소재한 만큼 전남 지역민들이 혁신도시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은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기대가 높은 광주 거주층(33.8%) 응답률이 전남(22.4%)에 비해 높았다.

전 연령층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응답률도 각각 37.8%, 36.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밖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는 ▲광주-무안공항 통합(18.9%) ▲군부대 이전 등 무등산 보호 및 개발(9.8%) 등이 있었다. 기타는 1.8%였다.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광주·전남지역민 과반 이상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의 56.0%가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라고 답했다.

광주지역 거주층(61.9%)이 전남지역 거주층(51.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 시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복지문제 해결(12.5%) ▲신진 정치인 발굴 및 육성(9.0%) ▲첨단산업 육성(7.7%) ▲환경보호 등 자연환경 보존(6.9%)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6.5%) ▲기타(1.4%) 순이었다.

◇광주 먹거리 산업은=광주의 미래 먹

거리로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3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수소차 등 자동차 산업'(32.3%),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22.3%) 등을 꼽았다. 민선 6기 광주시의 공약인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향후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수소차 등 자동차 산업'(37.7%) 응답이, 여성층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40.1%)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1%가, 30대에서 46.7%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았다.

젊은층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에서는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이 43.1%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응답률이 높았고, 서구와 남구는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응답률이 높았다.

◇전남 먹거리 산업은=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남의 특성상 '해양·관광산업'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0%가 '해양·관광산업'을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생명·바이오 산업(15.3%)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14.6%) ▲

융·복합 산업(7.4%) ▲기능성 화학산업(6.8%) ▲기타(4.0%)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과 연령, 지역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주요 계층에서 '해양·관광산업' 응답률이 50%를 넘는 등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대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이 20.8%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40대(19.8%)와 50대(21.4%)에서는 '생명·바이오 산업'이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22개 시·군 중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는 광주 근교권(나주시, 담양·영광·장성·화순군)에서 '해양·관광산업' 응답률이 3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상생발전 위해 혁신도시 활성화 시급

광주 미래 먹거리 문화콘텐츠·자동차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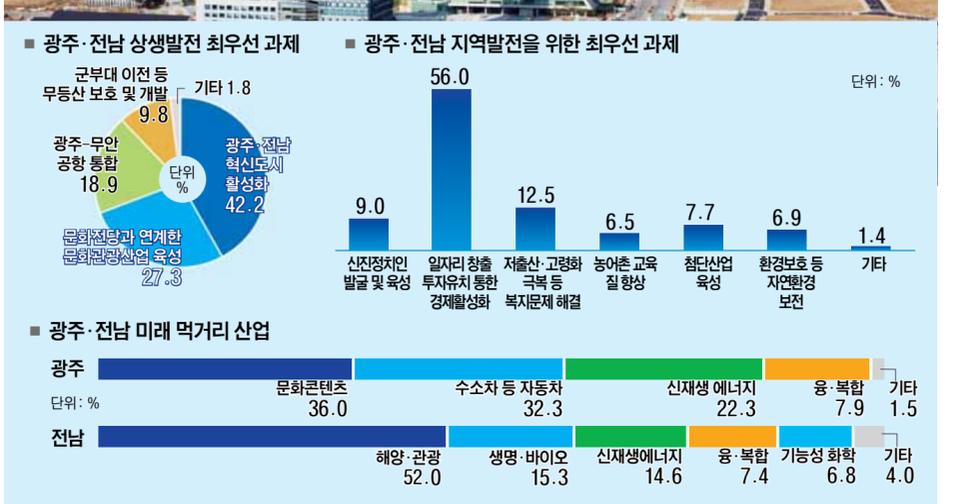
전남은 해양·관광산업, 생명·바이오산업

서울 간다면... KTX 54%, 고속버스 25%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생명·바이오 산업'(24.2%),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2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서울 방문시 이용하고 싶은 교통편=호남선 KTX가 지난 4월 개통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KTX 이용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1%가 고속철도인 'KTX'를 꼽았다. 이어 ▲고속버스(25.1%) ▲자가용(14.7%) ▲항공(6.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55.0%)가 전남(53.5%)보다 KTX를 더 선호했고,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KTX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50대에서 60.3%의 유독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540명 유선 RDD방식 전화면접조사

■ 여론조사 어떻게 했다

'호남·호남인'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지령 2만 호 발행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베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와 전문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표본 추출은 광주·전남지역의 성, 연령별, 지역(구·군)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비례할당추출 후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으며, 전화번호 추출은 KT전화번호부를 기반으로 유선전화 RDD(임의 전화걸기)방식을 활용했다.

선정된 표본은 광주 230명, 전남 310명이었으며, 통계처리방법은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가중치기법을 적용(2015년 4월말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기준)해 통계처리 조사결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내에 ±4.2%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9%였다.

20000

내일을 위해
오늘 또 한 장의 책장을 넘깁니다

폭넓은 독서와 토론은
상상력을 키우고 숨은 끼를 찾도록 도와
학생들의 내일을 새롭게 Design 합니다.
독서·토론수업으로 그리는 행복한 전남의 미래
...
책 속에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